

## 자초 추출액을 이용한 염색직물의 항균성 및 소취성

박영희 · 남윤자\*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의상학과

### The Antibacterial Activity and Deodorization of Fabrics Dyed with *Lithospermum erythrorhizon* Extract

Young Hee Park · Youn Ja Nam\*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hee University

(2002. 6. 21. 접수)

#### Abstract

This study shows the colorfastness, antibacterial activity, and deodorizing effect about cotton and silk fabrics dyed with *Lithospermum erythrorhizon* Extract. In the case of colorfastness, the light colorfastness showed the lowest grade, the other colorfastness was relatively good.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according to fabrics and mordants. In the case of antibacterial activity to *Staphylococcus aureus*, the cotton fabrics had the most antibacterial effect at the dyed fabrics that had been mordanted  $\text{SnCl}_2 \cdot 2\text{H}_2\text{O}$ , and the silk fabrics had the most antibacterial effect at the dyed fabrics that had been mordanted  $\text{Al}(\text{CH}_3\text{COO})_3$ . In the case of deodorizing effect, the cotton fabrics showed the most deodorizing effect at the dyed fabrics that had been mordanted  $\text{SnCl}_2 \cdot 2\text{H}_2\text{O}$ , and the silk fabrics showed the comparatively high antibacterial effect at the dyed fabrics that had been mordanted both  $\text{SnCl}_2 \cdot 2\text{H}_2\text{O}$  and  $\text{Al}(\text{CH}_3\text{COO})_3$ .

**Key words:** *Lithospermum erythrorhizon* Extract, Natural Dyes, Antibacterial Activity, Deodorizing Effect; 자초 추출액, 천연염색, 항균성, 소취성

#### I. 서 론

식물성 염료(색소)는 과거 1만년 이상 인류의 의생활에 사용되어져 왔으며, 식물의 잎과 꽃, 뿌리, 줄기, 열매 등에 함유되어 있는 색소를 추출하여 염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색소 성분에는 항균 · 항암성 등의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상당수이므로 색상뿐만 아니라 항균이나 방취 등의 기능성 직물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인체에 대한 자극이 거의 없고 우아한 색상을 나타내며, 퇴색이 되더라도 자연스럽고 독특한 색조로 표현되며, 염색 폐수의 피해를 감소시켜 환경 친화적인 재료로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섬유제품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식물성 염료에 대한 기록은 우리나라의 고문헌인 *본초강목*(本草綱目) *규합총서*(闡闍叢書) 등에도 잘 나타나 있으며, 자주 빛으로 염색을 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져 온 것으로는 자초(紫草)를 들 수 있다.

옹창수 외(1994)에 따르면 자초는 지치과 *Boragin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인 자초의 뿌리로써 학명은 *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 et Zucc.이다. 주요 산지로는 한국, 일본, 중국 등지로 알려져 있다. 권수영(1993)에 따르면 자초 뿌리의 코르크층에 함유되어 있는 1,4-dinaphthoquinone계 물질인 시코닌(shikonin)은 고대부터 비단의 붉은 염색제로 이용되어 왔고, 최근 들어 식품 및 생물학에서도 포도의 안토시아닌과 더불어 자초의 시코닌을 통한 천연 색소로











견 시험포의 경우에는  $\text{Al}(\text{CH}_3\text{COO})_3$ 로 매염처리 한 것이 81%의 균 감소율로 가장 높은 항균성 효과를 보였다.

7) 소취성 효과에 대한 시험의 결과 면 시험포에서는  $\text{SnCl}_2 \cdot 2\text{H}_2\text{O}$ 로 매염처리 한 것이 가장 높은 소취율을 보였으며, 견 시험포의 경우에는  $\text{SnCl}_2 \cdot 2\text{H}_2\text{O}$ 와  $\text{Al}(\text{CH}_3\text{COO})_3$ 로 매염 처리한 것이 거의 같은 소취율로 높은 소취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 매염처리가 염색견뢰도 향상에는 크게 효과가 없었다고 사려되어 다음 실험에서는 본 실험을 참고로 염액추출을 중류수가 아닌 자초의 색소추출에 적합한 알코올을 선택 및 염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한 후 전통적인 매염방법을 활용하여, 황색포도상 구균이나 무좀의 원인이 되는 백선균 등 섬유제품과 관련된 인체에 유해한 균들에 대한 다양한 항균성 효과를 지속적으로 실험하려 한다. 이로써 천연염색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 참고문헌

용창수, 문영희, 이경순. (1994). 한국본초학. 형설출판사.

- 권수영. (1993). 지치의 혼탁 배양 세포로부터 시코닌 색소 생산관련 유전자와의 클로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경래. (2000). 천연염료와 염색. 형설출판사.
- 임정희. (1992). *Agrobacterium rhizogenes*에 의해 형질전환된 지치의 모상근으로부터 시코닌계 색소의 생산.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양섭. (1979). 한국 전통자염연구. 건국대학교 부설 생활문화연구소, 3, 51-75.
- 주영주, 소황옥. (1990). 자초염의 매염에 관한 실험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14), 133-143.
- 조경래. (1989). 천연염료에 관한 연구(II)-자근색소에 의한 건섬유염색. 한국의류학회지, 13(4), 370-379.
- 최희, 신윤숙. (2000). 자초색소의 특성분석 및 염색성(제1보)-자초색소의 성분과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24(7), 1081-1087.
- 조경래. (1997). 염색이론과 실험. 형설출판사.
- 김인규. (1999). 신염색학. 문운당.
- 우지형. (1985). 섬유제품의 항균방취가공과 그 효력검사①. 직물검사, 29-31.